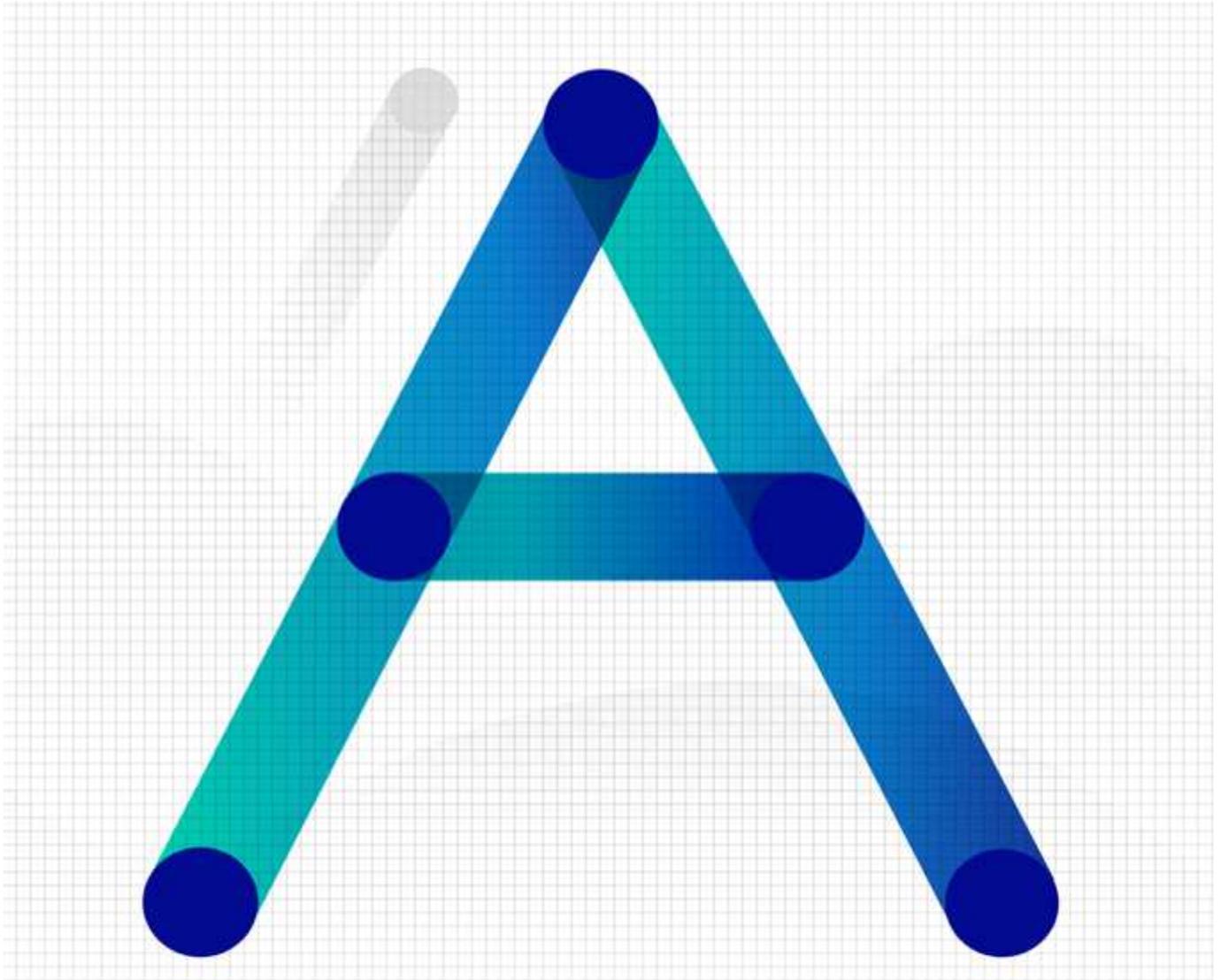


2020년 하반기 해외건설산업 동향

- I. 해외건설시장 동향
- II. 국내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 III. 시사점

작성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요 약>

I. 해외건설시장 동향

(해외건설시장 규모) 2019년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4,731억 달러였으며, 2020년 시장규모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년 대비 2.1% 감소한 4,630억 달러로 추정

- 2021년 해외건설시장은 코로나19 개선 및 글로벌 경기부양 조치로 2019년 수준인 4,7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향후 해외건설시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후 인프라 교체 수요 및 개도국 중심의 경제개발을 위한 신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지역별) 2019년 지역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아시아 1,252억 달러, 유럽 1,058억 달러, 북미 882억 달러, 중동 714억 달러, 아프리카 553억 달러, 중남미 233억 달러

- 2019년 북미지역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중동지역은 2016년 이후 매출 감소세가 지속 중이며, 2020년의 경우 전 지역에서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공종별) 2019년 공종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교통분야 1,466억 달러, 건축 1,235억 달러, 석유화학 709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인프라 수요 증가와 투자 확대로 교통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화학, 발전, 산업시설 등 2019년 플랜트 분야 시장규모는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
- 2020년의 경우 지역별 매출 감소 추세와 유사하게 전 공종에 걸쳐 매출 감소가 불가피

II. 국내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국내 해외건설 수주실적) 우리나라 기업의 2020년 수주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지역의 봉쇄조치로 수주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중남미 지역 수주 증가로 351억 달러를 기록

(지역별 수주) 2020년 중동수주는 전년 대비 179.5%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해, 2017년 이후 3년만에 100억 달러 이상 수주를 회복

- 중남미 수주액은 6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4배 증가해, 2020년 해외건설 수주 350억 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
- 하지만 2020년 해외건설 수주 증가에 크게 기여했던 중남미 수주가 올해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수주 목표치를 전년 대비 하향 조정



(공종별 수주) 플랜트, 토목, 건축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수주가 증가했으며, 특히 토목분야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2020년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대비 71.4%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200억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 2020년 토목 수주액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46억 달러를 아시아 및 중남미 철도사업에서 수주

(주요 건설사 동향) 2020년 상위 10개 건설사의 해외수주액 304.9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87%를 차지

- 상위 대형사의 수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삼성ENG의 경우 2012년 105억 달러 기록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삼성ENG는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37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 가스 프로젝트(18.5억 달러), 알제리 정유 프로젝트(16.6억 달러) 등 플랜트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
- 2019년 상반기 이후 해외 현안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주 여력도 크게 회복

(2021년 수주 전망)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2021년에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 상황도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중남미 수주액이 전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증가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

III. 시사점

글로벌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분야 및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주 확대 전략이 필요

-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등장에 따른 교통시스템의 스마트화 및 최근 자율자동차 등장으로 교통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
- 화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플랜트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로 인해 추세적으로 감소할 전망
- 특히 발전 플랜트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발전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개도국 석탄 발전소 건설도 규제 및 제약이 더욱 심해질 전망



I. 해외건설시장¹⁾ 동향

1. 해외건설시장 개관

2019년 기준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4,731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9% 감소

- 해외건설시장은 2016년 4,681억 달러를 저점으로 반등했으나, 2019년 다시 마이너스 성장
- 해외건설시장은 2013년 5,440억 달러를 정점으로 2016년 5,000억 달러를 하회한 이후 4,500~5000억 달러에서 횡보 중
-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유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건설시장 규모가 5,000억 달러를 넘어섰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두바이유 기준 평균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
- 해외건설시장은 2015년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대로 하락함에 따라 오일&가스분야 및 정유 관련 플랜트 투자가 감소하면서 2016년 이후 하향세를 기록 중

2020년 해외건설시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한 4,6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부양에 힘입어 2019년 수준인 4,75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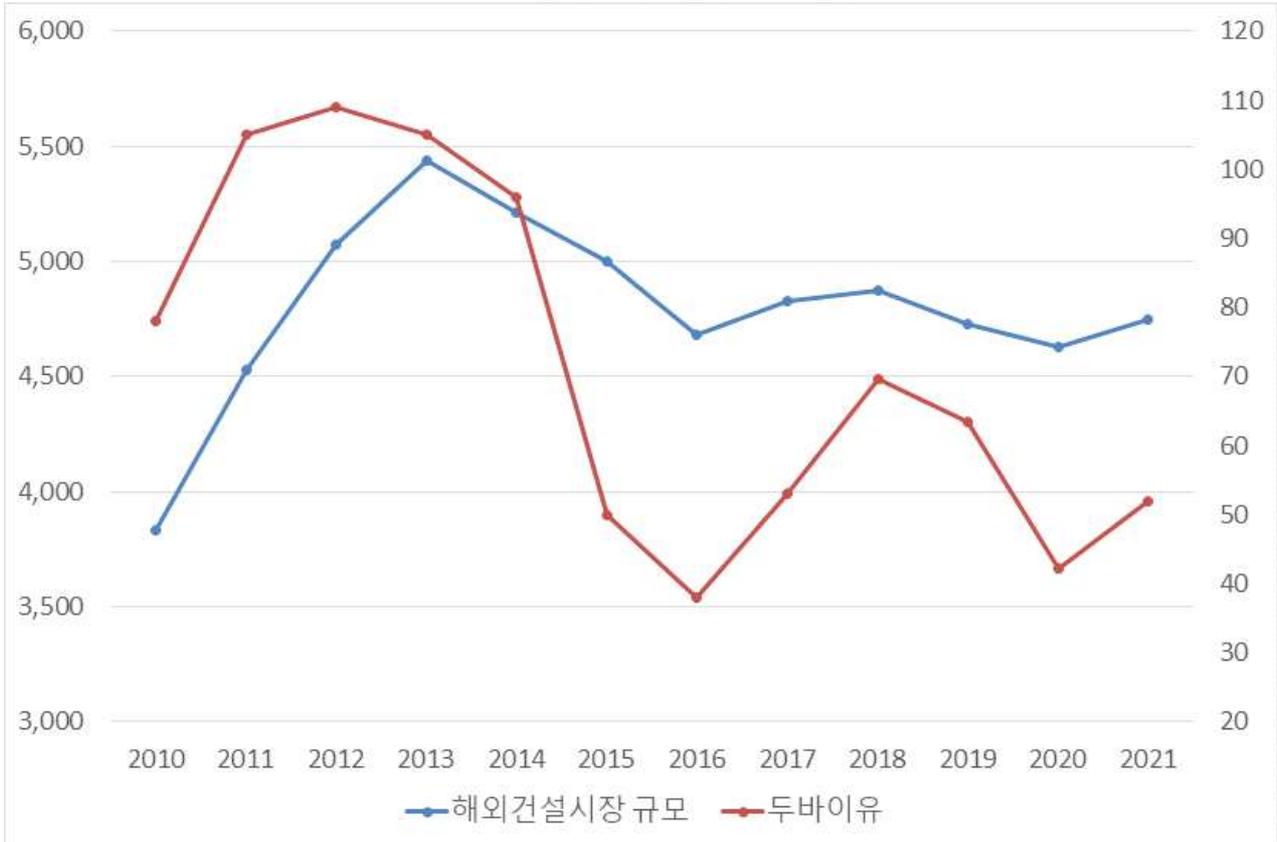
- 2020년 해외건설시장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 발생으로 인해 2019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을 것으로 추정
- 2020년 해외건설시장은 세계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년 대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글로벌 해외건설 시장도 역성장이 불가피
- 특히 해외건설시장에 영향력이 높은 중동지역 2020년 프로젝트 발주량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봉쇄 조치 및 유가 약세 등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021년 해외건설시장은 코로나19 개선 및 글로벌 경기부양 조치로 2019년 수준인 4,75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향후 해외건설시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노후 인프라 교체수요 및 개도국 중심의 경제개발을 위한 신규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
- 이에 반해 정유 및 석유화학 등 플랜트 부문은 저유가 및 공급과잉 이슈로 인해 과거 대비 투자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규모도 하향 안정화될 전망
- 해외건설시장은 2021년 회복기를 거쳐 2022년 이후 인프라 수요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침체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

1) 해외건설시장 정의 : 글로벌 250대 기업의 매출 기준으로 정의된 시장이며,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 11조 달러로 추정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달러, \$/배럴)



자료: ENR

2. 지역별 해외건설시장 동향

(아시아) 2019년 기준 아시아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1,252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1,22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

- 해외건설시장에서 아시아 비중은 2015년 24.1%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5%를 유지
-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향후 인프라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아시아 건설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제한 등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건설투자 역시 2020년 상반기 내내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개선되나 연간 기준 마이너스 성장 추정
- 2021년부터는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지연되었던 프로젝트 재개 등으로 아시아 시장은 1,250억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유럽 및 북미) 2019년 유럽시장은 1,058억 달러, 북미시장은 8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9%, 9.0% 성장

- 2015년 이후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유럽시장은 2019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2020년은 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
- 2020년 EU 경제성장률은 -7.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으로, 경제봉쇄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으로 건설투자 역시 크게 위축되어 2020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
- 2021년 기저효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
- 2019년 북미지역 해외건설 매출은 경기호황으로 인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 미국 민주당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전기자동차 및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분야가 2021년 이후 북미지역 건설시장을 견인해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중동) 2019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1.7% 감소한 714억 달러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약세로 7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

-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중동지역은 2014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해 시장이 부진했으나, 2016년을 바닥으로 상승 전환 중
- 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중동발주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 매출 역시 800억 달러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 2019년 유가가 하락 반전됨에 따라 중동지역 건설 매출도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으로 매출 감소 폭이 더 컸을 것으로 추정
- 2020년 4월까지 MENA 지역에서 체결된 건설 계약액은 전년 대비 37%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음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선까지 급락하는 등 중동지역 경제 상황이 급변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동지역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10% 이상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
- 2021년 중동지역 해외건설시장은 2020년 대비 증가하겠으나,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



지역별 해외건설 시장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아시아	1,203	25.7	1,276	26.5	1,274	26.1	1,252	26.5
유럽	960	20.5	1,023	21.2	1,078	22.1	1,058	22.4
중동	840	17.9	814	16.9	809	16.6	714	15.1
북미	723	15.4	782	16.2	809	16.6	882	18.6
아프리카	515	13.1	624	12.9	601	12.3	553	11.7
중남미	337	6.6	272	5.6	271	5.6	233	4.9
기타	103	2.2	33	0.7	31	0.6	39	0.8
전체	4,681	100.0	4,824	100.0	4,873	100	4,731	100.0

자료: ENR

MENA 지역 2020년 건설계약 체결현황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NR



3. 공종별 해외건설시장 동향

2019년 공종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교통분야 1,466억 달러, 건축 1,235억 달러, 석유화학 709억 달러를 기록

- 글로벌 인프라 수요 증가와 투자 확대로 교통분야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및 스마트 교통시스템 등 4차 산업혁명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교통인프라 투자 수요가 증가 중
- 교통분야는 2014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로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개도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신규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상황
- 2020년의 경우 성장세를 지속하던 교통분야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역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2021년 시장규모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 발전, 산업시설 등 2019년 플랜트 분야 시장규모는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20년 역시 마이너스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
- 2019년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7.3% 감소한 709억 달러, 발전설비 시장규모는 4.1% 감소한 486억 달러, 산업시설은 전년 대비 26.2% 감소한 160억 달러에 불과
- 유가 상황에 크게 연동하는 플랜트 시장 특성상 저유가 지속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제한적이어서 당분간 시장규모는 현 규모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

공종별 해외건설 시장 현황

(단위: 억 달러,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시장규모	비중
교통	1,444	30.8	1,534	31.8	1,522	31.2	1,466	31.0
석유화학	1,045	22.3	890	18.5	765	15.7	709	15.0
건축	1,014	21.7	1,122	23.3	1,146	23.5	1,235	26.1
발전	456	9.7	500	10.4	507	10.4	486	10.3
산업시설	147	3.1	192	4.0	217	4.4	160	3.4
상수	122	2.6	123	2.6	144	3.0	139	2.9
제조공장	101	2.2	97.4	2.0	161	3.3	108	2.3
하폐수	60	1.3	71.1	1.5	85	1.7	80	1.7
통신	48	1.0	50	1.0	68.7	1.4	78	1.7
폐기물	12	0.3	9	0.2	7.3	0.1	5	0.1
기타	232	5.0	231	4.8	250	5.1	265	5.5
합계	4,681	100.0	4,824	100.0	4,873	100.0	4,731	100.0

자료: ENR



4. 주요 수주국별 매출 동향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한국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1% 감소한 246억 달러

- 2019년 해외건설 시장에서 중국 매출 비중은 25.4%를 기록해 전년 대비 1% 증가
- 가성비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개도국 인프라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 가고 있으며, 이 지역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73.3%를 차지
- 최근 들어 M&A를 통한 석유화학 등의 새로운 기술 확보로 중동 등 글로벌 플랜트 시장으로 진출 확대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진출로 인해 시장 질서 교란 중
- 중국에 이어 해외건설 2위 국가인 스페인은 총 707억 달러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9% 증가
- 스페인의 경우 아시아 155억 달러, 유럽 140억 달러, 미국 224억 달러, 중동 69억 달러 등 네 개 지역에서 고른 매출을 올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확보 중
- 2017년 이후 우리나라 해외건설 매출액이 300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석유화학 등 플랜트 분야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교통 등 인프라 관련 매출은 커지고 있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전략수정이 필요
- 2015년 이후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플랜트 중심의 수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



수주국별 해외건설 매출 현황

(단위: 억 달러, %)

국가	2016년		국가	2017년		국가	2018년		국가	2019년	
	매출액	점유율									
중국	987	21.1	중국	1,140	23.6	중국	1,190	24.4	중국	1,200	25.4
스페인	590	12.6	스페인	670	13.9	스페인	687	14.1	스페인	707	14.9
미국	419	8.9	프랑스	368	7.6	프랑스	426	8.7	프랑스	469	9.9
프랑스	417	8.9	미국	335	7.0	미국	342	7	독일	311	6.6
한국	339	7.3	독일	303	6.3	독일	316	6.5	미국	246	5.2
이태리	267	5.7	한국	257	5.3	한국	290	6.0	한국	246	5.2
터키	256	5.5	일본	253	5.2	터키	222	4.6	터키	216	4.6
일본	244	5.2	터키	232	4.8	일본	197	4	영국	197	4.2
독일	236	5.0	영국	222	4.6	영국	189	3.9	일본	194	4.1
영국	88	1.9	이태리	186	3.9	이태리	162	3.3	이태리	145	3.1
전체	4,681	100.0	전체	4,820	100.0	전체	4,869	100.0	전체	4,731	100.0

자료: ENR



II. 국내 해외건설 수주 동향 및 전망

1. 수주 동향

(지역별 수주)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지역의 봉쇄조치로 수주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중남미 지역 수주 증가로 우리나라 기업의 2020년 수주액은 351억 달러를 기록

- 2019년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동 수주는 2020년 13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79.5% 증가,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억 달러 이상 수주 회복
- 2020년 1~2월 중동수주액은 58억 달러를 기록해 2020년 중동 수주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3월 이후 수주 활동에 제약이 발생
- 2, 3분기 수주액은 18억 달러에 불과해 100억 달러 수주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4분기 48억 달러 수주로 2020년 중동수주액은 133억 달러를 기록
- 2020년 아시아 수주액은 11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유럽, 아프리카의 경우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
- 중남미 수주액은 6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24배 증가해, 2020년 해외건설 수주 350억 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
- 중남미 수주는 2017년 이후 10억 달러 미만에 불과했으나, 2020년 초대형 정유공장 및 철도 사업 수주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
-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당초 280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중남미 지역 수주 선전 및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치열한 수주 노력으로 인해 전망치를 초과 달성

2020년 지역별 수주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동	261	313	165	107	145	92	48	133
아시아	275	159	197	127	125	162	125	116
유럽	7	68	10	6	1	37	25	16
중남미	33	68	45	16	4	7	3	69
아프리카	11	22	8	12	7	12	17	12
북미	65	30	36	14	6	10	6	5
합계	652	660	462	282	290	321	223	351

자료: 해외건설협회



(국가별 수주) 2020년 상위 10개국 수주액은 255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73%를 차지

- 중동 4개국(106억 달러), 중남미 2개국(66억 달러), 아시아 3개국(59억 달러), 아프리카 1개국(25억 달러)이 순위권에 있으며, 중동 국가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와 파나마가 2, 3위를 차지한 것은 지역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
-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나마 등은 단일 프로젝트 계약액이 국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수주 건수보다는 대형 프로젝트가 국가 순위를 결정

2020년 국가별 수주 현황

순위	국가	2020		2019		전년대비 증감률 (%)	누계(~2020)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수주액 (백만달러)	비중 (%)
1	이라크	4,471	12.7	582	2.6	668.5	41,008	4.7
2	멕시코	3,710	10.6	359	1.6	933.4	10,106	1.2
3	파나마	2,849	8.1	-171	-0.8	-1764	4,126	0.5
4	베트남	2,747	7.8	1,650	7.4	66.5	43,436	5
5	알제리	2,474	7.0	20	0.1	11971.4	17,819	2.1
6	사우디	2,413	6.9	3,020	13.5	-20.1	146,991	16.9
7	아랍에미리	1,987	5.7	709	3.2	180	80,098	9.2
8	방글라데시	1,745	5.0	886	4	96.9	7,741	0.9
9	카타르	1,720	4.9	199	0.9	763.3	24,720	2.8
10	중 국	1,380	3.9	2,365	10.6	-41.7	22,238	2.6
	기 타	9,635	27.4	2,310	56.9	-24.1	470,718	54.1
	합 계	35,131	100	11,929	100	57.4	869,001	100

자료: 해외건설협회

(공종별 수주) 플랜트, 토목, 건축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수주가 증가했으며, 특히 토목 분야는 201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2020년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 대비 71.4% 증가한 186억 달러를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200억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
- 플랜트 수주액 186억 달러 중 중동 비중은 47%였으며, 중남미 비중은 21%를 차지해 아시아 지역 수주를 추월
- 2019년의 경우 플랜트 비중이 50%를 하회했으나, 2020년에는 53%를 기록해 50%선을 회복
- 2020년 토목 수주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 중 46억 달러를 아시아 및 중남미 철도사업에서 수주
- 교통 관련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 시장에 대한 전략적 수주 필요성 증대



- 건축 수주액은 국내 그룹사 발주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건축 수주액의 59%인 30억 달러가 수주됐으며, 중동의 경우 카타르 오피스 공사 10.6억 달러가 수주액의 대부분을 차지
- 주력 분야인 플랜트 수주가 반등했으며, 글로벌 인프라 수요 증가와 함께 토목 수주도 20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2020년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토목	181	57	85	64	51	72	45	98
건축	54	49	71	53	24	54	49	50
플랜트	396	517	265	132	199	184	109	186
전기	8	14	9	15	7	4	7	7
통신	2	2	2	0	0	0	1	1
용역	10	21	30	17	8	8	12	9
계	652	660	462	282	290	321	223	351

자료: 해외건설협회

(금융조달) 351억 달러 수주 중 발주처 예산(263억 달러)이 75%를 차지했으며, ODA(56.4억 달러) 비중이 17%로 증가한 것이 특징

- 방글라데시 공항사업(16.6억 달러), 미얀마 변전소 공사(1억 달러), 하반기 파나마 메트로사업(28.4억 달러)등 JICA 재원사업 46억 달러를 수주해 ODA 공사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
- 새로운 수주모델로 강조되고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7억 달러 수주에 불과
-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해선 시공 중심의 사업 모델은 한계가 있어 결국 자본 투자를 통한 개발사업 모델이 필요
- 인프라 사업은 플랜트 사업 대비 기술진입 장벽이 낮으며, 사업성공의 핵심요인은 기술보다는 자본조달 및 운영방식이 중요한 요소이나, 여전히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상황



금융조달별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주처 예산	538	372	237	175	253	158	263
시공사 금융	69	36	11	61	7	4	4
투자개발형	22	14	1	15	12	18	7
ODA	6	14	12	29	13	11	56
그룹자체 공사	25	26	21	10	36	32	21
합계	660	461	282	290	321	223	351

자료: 해외건설협회

2. 주요 건설사 동향

2020년 상위 10개 건설사의 해외수주액 304.9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87%를 차지

- 상위 대형사의 수주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삼성ENG의 경우 2012년 105억 달러 기록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삼성ENG는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37억 달러), 사우디 아람코 가스 프로젝트(18.5억 달러), 알제리 정유 프로젝트(16.6억 달러) 등 플랜트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
- 2010년 이후 대규모 수주의 후유증으로 2013년부터 현안사업장이 발생하면서 해외건설 부문의 사업성이 악화됐으나, 2019년 상반기 이후 마무리 단계에 진입
- 2017년까지 해외건설 부문은 적자를 기록했으나, 2018년 1분기 이후 해외건설 부문의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한 상황
- 실투입원가 대비 예정원가가 100%를 초과하는 해외 프로젝트 비중이 2016년 3월 11.5%에 달했으나, 2018년 9월 4%선까지 낮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수익성도 플러스로 반전
- 우리 건설기업들의 수주체력 회복을 바탕으로 2020년 351억 달러 수주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전년 수준의 수주를 기대



국내 주요 건설사 해외건설 수주액 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삼성ENG	105	31.7	42.4	5.8	13.5	36.5	69.4	5.4	76.4
현대ENG	35.9	52.7	96.5	57.7	23.6	48.6	49.6	36.8	23.8
삼성물산	38.0	136.3	67.9	56.5	51.1	15.3	34.9	22.7	45.6
SK건설	25.6	47.8	66.6	43.2	2.1	21.1	29.2	-	2.3
대우건설	38.2	50.0	35.5	25.8	7.9	22.7	20.6	20.7	39.0
대림산업	23.1	39.5	20.9	23.1	6.0	26.6	13.7	7.4	4.8
현대건설	105.0	109.0	110.6	34.0	29.7	21.9	13.1	41.6	64.5
포스코	46.8	22.4	29	21.5	19.7	13.9	12.2	3.7	17.7
GS건설	44.8	52.9	59.5	55.4	20.9	14.7	9.3	21.9	30.8
합계	462.4	542.3	528.9	323.0	174.5	221.3	252.0	160.0	304.9

자료: 해외건설협회

3. 2021년 해외건설 수주전망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3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2021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대비 전면 봉쇄, 이동 제한 조치는 완화되어 글로벌 수주 환경은 개선
- 유가는 2020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플랜트 수주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지역 수주는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수주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9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이 호황세를 끝내고 조정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를 위한 적극적 해외건설 수주 참여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
- 과거 해외건설 부실 정리 및 국내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이익 증가로 건설사의 수주체력도 크게 회복된 상황
- 2020년 입찰 참여 규모는 1,107억 달러로 2019년 835억 달러 대비 33% 증가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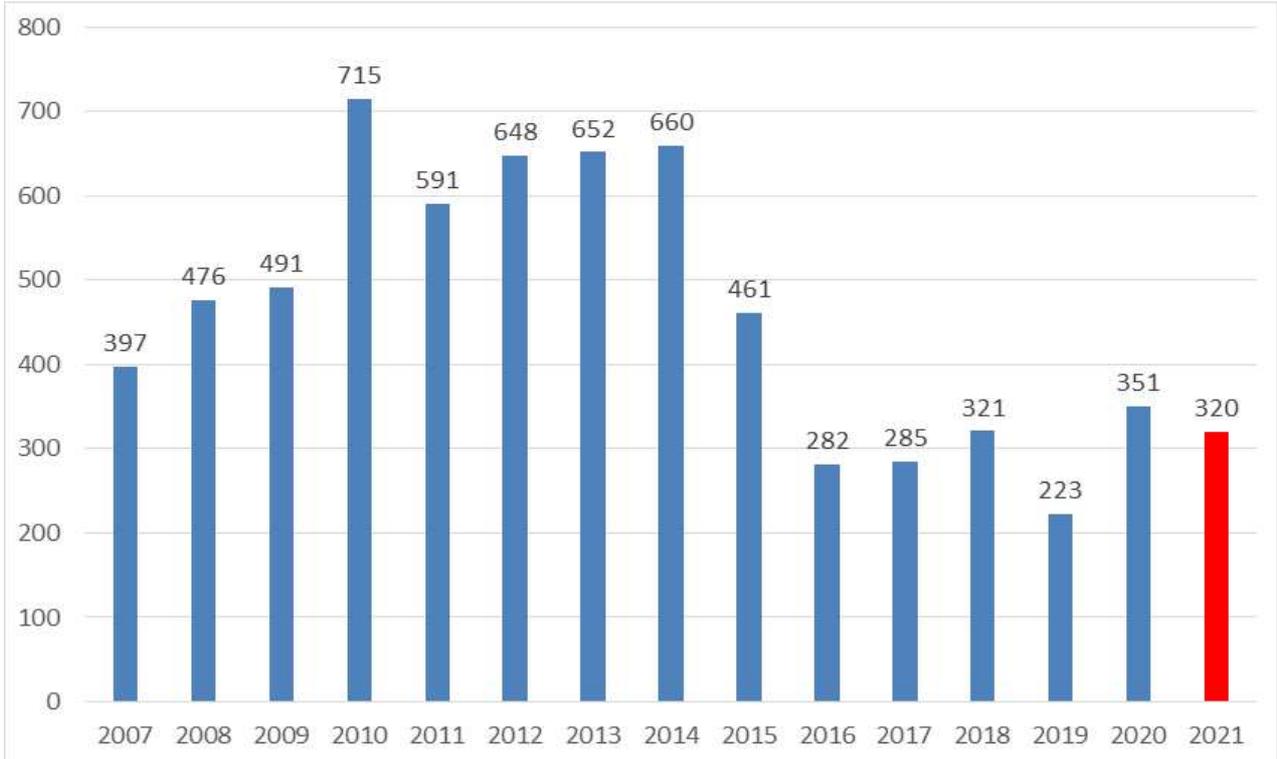
※ 연도별 해외 입찰 참여 규모(억 달러) : 1,035('16) → 930('17) → 908('18) → 835('19) → 1,107('20)

- 하지만 큰 폭으로 증가했던 중남미 수주액이 전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증가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
- 여기에 우리 기업들의 2021년 해외수주 목표치도 전년 수준 또는 하향되고 있어, 2021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우세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 달러)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1년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국내 건설시장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민간발주	67.4	55.1	66.7	113.3	117.5	113.1	112.2	118.0	125.0	110.0
공공발주	34.1	36.2	40.7	44.7	47.4	47.3	42.3	48.0	50.0	54.0
합계	101.5	91.3	107.4	158.0	164.9	160.4	154.5	166.0	175.0	164.0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II. 시사점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수주 증가로 인해 350억 달러를 달성

- 2019년 극심한 수주 부진으로 인해 2020년 수주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한 280억 달러를 예상했으나, 수주액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는 351억 달러를 기록
- 2019년 이월된 중동 프로젝트가 연초에 수주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대외 수주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 해외건설 수주도 연초 예상치를 하향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하지만 10월 이후 중동(48억 달러) 및 중남미(66억 달러)에서 대형 수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2, 3분기 부진을 만회
- 2020년 해외건설 수주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남미 수주에 기인
- 2020년 중남미 수주액은 69억 달러였으며, 이는 중남미 해외건설 수주액 중 사상 최고치

2021년 해외건설 산업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과거 200억 달러 수준의 침체는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21년 해외건설 수주는 수주액의 60%를 차지하는 플랜트 수주가 얼마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으며, 최근 유가 상승 및 글로벌 소비 회복 추세에 따른 석유화학 수요 증가로 올해 플랜트 발주 상황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중동 및 아시아 지역 수주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2020년 큰 폭의 수주를 기록했던 중남미 수주는 예년 수준에 그쳐 2021년 전체 수주 총액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분야 및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주 확대 전략이 필요

-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통 시스템의 스마트화 및 최근 자율자동차 등장으로 교통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정유 및 석유화학 플랜트 수요는 글로벌 친환경 추세로 인해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자동차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부상은 석유 사용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글로벌 석유화학 제품 공급과잉은 관련 플랜트 투자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발전 플랜트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발전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개도국 석탄 발전소 건설도 규제 및 제약이 더욱 심해질 전망
- 2050년까지 글로벌 발전 섹터 투자 전망을 살펴보면 풍력 5.3조 달러, 태양광 4.2조 달러, 가스 1.9조 달러, 원자력 0.8조 달러, 수력 0.7조 달러, 석탄 0.4조 달러 순